

시론 **미국의 반미주의가 한국 반미주의를 낳는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상반급 합동군사연습의 기본연습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호전파들은 그 무슨 《방어적성격》의 지휘소훈련이니, 컴퓨터모방식의 훈련이니 하고 광고하고있지만 이것은 저들의 대결적, 호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 동족을 겨냥하여 전쟁연습을 벌이는 그 자체가 후호도 용납할수 없는 도발망동이고 죄악이다. 남조선호전파들이 미국과 함께 벌이는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핵전쟁에비면습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지향에 역행하여 북침전쟁연습을 한사코 강행한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전쟁미치광이들이다. 현실은 실제적인 전쟁역력만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절대적인 힘, 무적의 자위적핵전쟁역력을 가진 최강국이다. 남조선호전파들은 자기의 도발적망동이 가져올 처절한 대가에 대해 숙고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후회는 항상 늦은 법이다.

정 필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짓**

얼마전 공화국이 진행한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에 남조선호전세력이 극도로 긴장해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그들은 공화국의 신형전술 유도무기를 두고 《과거와는 다른 현실적인 핵위협이다.》, 《배비된 요격체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지역은 한방에 큰 피해를 당할것이다.》, 《미국을 겨냥한 ICBM보다 더 큰 위협이다.》 등으로 련일 아우성을 치고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윤석열과 군부의 《대북선제타격》망발, 남조선미국연합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행태들에 대한 경고이고 전면대응이라고 하면서 북에 대한 자국적인 군사행동이 치명적인 핵공격을 불러올수 있다며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

은 이미전에 남조선이 군사적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세력은 대결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감히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너드리를 늘어놓다 못해 무모하기 그지없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았으며 미국의 핵동력항공모함에까지 승선하여 북침을 위한 군사적방안을 모의하는 광기를 부리었다. 더구나 윤석열패당은 벌써부터 미국상선을 찾아다니고 남조선감정 미군기지를 싸다니며 공화국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들을 로골적으로 꿰뚫었다. 핵보유국을 상대로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상대를 자극하는 대결망발을 내뿜는것자체가 제 죽을 구멍을 파는 어리석

**무협천만민(한) 핵전쟁너발쟁(노)**

미국이 남조선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것과 때를 같이하여 조선동해상에서 일본것들과 연합해상기동훈련을 벌여놓았다. 미핵동력항공모함전단과 일본해상 《자위대》소속 이지스구축함, 일본항공 《자위대》소속 전투기전대들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 대해 미국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경고성》훈련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미핵동력항공모함전단은 필리핀해상에서 스텔스전투기, 추격속격기를 비롯한 전투기전대들을 조선서해상으로 출격시키는 장거리비행훈련도 진행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조선동해상에서 연합해상기동훈련을 벌이는 기간 《한미연합군》우두머리들이 미핵동력항공모함에 승선하여 북침전쟁모의를 벌여놓았다. 미국이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첫 과녁을 공화국으로 정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흥계를 실현에 옮기기 위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남조선, 일본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벌이고있다. 한편 섬나라족발이들도 제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 대조선전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 이러한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광분하는 대결미치광이들이 다름아닌 남조선호전세력이다.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이 미핵동력항공모함에 올라 미국과 북침전쟁계획에 대해 모의한것은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불순한 기도의 집중적인 발로이다. 미국과 그 추종하는 왜나라것들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흥계와 불장난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전쟁도발책동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고있는데 도발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섬나라족속들, 남조선호전세력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결코떠며 광이러린 불장난소동을 벌리고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흔히백산한자들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놀랄 공화국이 아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공화국의 립장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명심하고 경계망동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남조선에서 고조되고있는 반미, 반전, 반보수투쟁**

남조선의 각계층 투쟁단체들이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4월 12일부터 28일까지를 반미투쟁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진보적인 예술단체들도 얼마나 더 죽어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얼마나 더 많은 로탄이 날아들어야 평화를 알게 될것인가, 평화로운 전쟁은 없다고 하면서 남의 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미주제노래들을 적극 창작 보급하고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주로총, 전국민중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중단을 요구하며 성모모임과 전쟁격과대회, 북침훈련중단을 반대대회, 전쟁연습 부추기는 미국내우기의식, 항의시한 전달 등 다양한 형태의 반

미투쟁을 전개하고 그 정형을 인터넷으로 실황중계하면서 반미, 반전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전국적인 예술단체들도 얼마나 더 죽어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얼마나 더 많은 로탄이 날아들어야 평화를 알게 될것인가, 평화로운 전쟁은 없다고 하면서 남의 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미주제노래들을 적극 창작 보급하고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전쟁광인 윤석열이

**반노동정책추진을 위한 고활한 술책**

얼마전 윤석열이 남조선의 대표적 노동운동단체의 하나인 《한국로총》을 찾아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마치 노동자들의 생활처지를 걱정이나 하는것처럼 《로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노동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다.》, 《앞으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고 떠들며대고 한다. 또한 《한국로총》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로사가 한몸이 되도록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는 하며 《한국로총》에 추파를 던지었다고 한다. 윤석열이 《한국로총》을 찾아가 부린 이러한 역겨운 추태는 자기의 친제별, 반노동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녹자고 노동계를 분열화시키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윤석열의 친제별, 반노동정책들은 이미 《대통령》선거후

보시절에 날같이 드러났다. 주 52시간노동제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시간연장을 주장하여 《무식한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도로포장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에 가서는 노동안전조건을 보장하지 않은 기업을 추궁할 대신 노동자가 안전구경을 지키지 않아 간단한 실수로 죽었다고 발언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초래한것이 윤석열이었다. 《주 120시간노동》, 《손발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것》 등의 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뿜고 《최저임금개혁》, 《비정규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변경과 폐지를 비롯한 친제별, 반노동정책을 떠들어대고있는것 역시 윤석열이다. 한편 윤석열은 집권하기 전부터 《치외법권적인 민주로

총을 엄하게 다스리겠다.》, 《불법집회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피대를 돌구면서 민주로총의 생존권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탄압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자가 《한국로총》을 적극 추어주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부린것은 《한국로총》을 끌어당기고 그들을 내세워 저들의 친제별노동정책을 무난히 추진해보려는 흉심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 지금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윤석열과 보수세력들이 반노동적, 반인민적성격을 그 어느 《정부》보다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하면서 반윤석열, 반보수투쟁에 필기해나서고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차



얼마전 남조선에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이 《국민의 당》과 서둘러 《표면화해》를 하고 합당을 선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보수야당들의 합당놀음은 불순한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한 합당인것으로 하여 사회 각계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추악한 권력싸움을 벌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당교체》의 리해득실을 수관앞으로 뒤희며 야합을 하기로 하였지만 합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것은 두 당사이에 로선과 당의 명칭, 당직자분배, 계파대립등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도 많았기때문이다. 최근 일본이 갈수록 복잡하고 첨예해지는 국제정세흐름을 틈타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집권초기부터 군사대국화 실현에 광분하여온 현 일본당정은 지금이야말로 헌법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때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평화헌법》을 《보통국가헌법》으로 개정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지난달에도 일본수상은 자민당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불을 붙인것이 이어 《안보환경변화》를 운운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국가안보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그러면 두 보수정당이 종사한 이복수에 들기로 한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동상이몽할것이라는것이 민심과 여론의 정이다. 그것은 《국민의 힘》의 경우에는 보수정파지들을 모두 끌어모아 새 보수 《정박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것도 박근혜지지세력을 끌어당겨 저들의 정치지반을 넓히고 정치무대에서 독선, 독주를 하기 위해서이며 《친박신당》이 《국민의 힘》의 처마밑에 들어가려는것 또한 《국민의 힘》의 세력권을 리

자가 환들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국민의 힘》의 당대표인 리준석과 안철수가 지난 《대통령》선거때부터 야권후보단일화와 선거런대문제를 둘러싸고 아웅다웅해온 양측관계인대다가 정책적립장에서도 적지 않게 대립되어있는것만큼 당운영과정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마디로 《국민의 힘》은 윤석열과 《국민의 당》파, 비윤석열과 《3인1당》이 서로 으르렁대는 형국이다. 이러한 《국민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하려 것이다. 지켜보나나나 보수당들의 합당놀음과 관련한 민심과 여론의 평 그대로일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이 《능력》에 포함되는 인사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측근인사에 매달리고있다. 앞으로 야당들과 무조건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새 《정부》에서 정쟁이 그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라고 평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주장하는것처럼 윤석열이 만들려는 《검찰공화국》, 그것은 지난 시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은 몹시러리는 파쇼독재의 연장이며 재현이다. 이제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 박근혜 《정권》과 조금도 다른없는 극악한 파쇼독재 《정권》에 의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권을 여지없이 유린당하며 더욱 참담한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더론할 여지도 없다. 본사기자 황금숙

**정치시정배들의 불순한 야합**

권》의 통치지반을 다지고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이겨보자는 목적에서 《국민의 당》과 합당을 한 것이고 《국민의 당》의 경우에는 《국민의 힘》의 당권을 거머쥐고 다음기 권력을 차지해보려는 속심으로부러 《국민의 힘》과의 합당에 동의한것이때문이다. 지금 《국민의 힘》이 《친

용하여 력사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모면하고 정치적으로 부활하기 위해서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친박신당》의 합당놀음은 정치적리해판에 따른 야합이고 결탁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보수

당들의 합당놀음에 대해 《한지붕 세 가족》, 《연제 깨질지 모를 굶이 간 그릇》, 《남조선에서의 불안한 동거》라고 조소야유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힘》안에서는 각 계파들의 갈등과 대립이

남조선이라는 번데기에서 벗어나고있는 전쟁부나비가 날개를 피럴일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도적은 갈잡한 밤만 기다린다고 섬나라야당들은 자기나까나 해외침략의 포성을 울릴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공화국과 제침에 미친듯이 질주하는 군국주의광신자들에게 조선반도와 지역,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당하고있다. 하지만 죄악은 정벌이 따르지마련이다. 일본이 조선민족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을 무시하고 분별없이 날뛰다가는 력사와 정의가 내리는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한 일 불

**재침을 꿈꾸는 섬나라족속들**

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것은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일본당국이 기본개정대상으로 꼽고있는 《평화헌법》 9조에는 《특해공공과 기타 권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있다. 이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공할수 있는 전트력의 소유와 전쟁권을 법적으로 포기한다는것을 명기한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이 해외침략과 령도팽창야욕에 열든 일본에 있어서 거저장소리

운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전쟁가능한 국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려는것이 섬나라족속들이 떠드는 헌법개정의 목적 인것이다. 일본이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은 이미 중국화해외침략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해외침략의 첫번째 목표는 다름아닌 조선반도이다. 일본이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면서 미국과의 야합밑에 《자

위대》를 공화국의 동해안에 상륙시키기 위한 작전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짜놓고 부단히 수정보충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실증하는 단적실례가 불과하다. 공화국을 목표로 삼고 《적기지공격능력》, 《선제타격능력》, 《중심공격능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 사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를 위한 환경조성마련에 몰두하고있는 사실, 명목상 유적이하고있던 《비핵화원칙》을 공공연히 차던지고있는 사실, 더욱 로골화되는 과거죄악부정과 력사의폭죽등 등은